

5. 병세편(兵勢篇)

세란 힘을 움직이는 기세로, 군의 편성과 지휘를 기초로 조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명령이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면 최대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孫子曰 凡 治衆如治寡는 分數 是也오 鬪衆如鬪寡는 形名이 是也오
손자왈 범 치중여치과 분수 시야 투중여투과 형명 시야

손자 말하기를 대체로, 많은 군사를 지휘하기를 마치 작은 군사를 지휘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대 편성 덕분이요, 많은 군사를 싸우게 하기를 작은 군사를 싸우게 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은 지휘통제수단 덕분이다.

孫子曰 凡 治衆如治寡는 分數 是也오 鬪衆如鬪寡는 形名이 是也오

三軍之衆이 可使必受敵而無敗者는 奇正이 是也오
삼군지중 가사필수적이무패자 기정 시야

대부대로 하여금 적을 맞아 반드시 패함이 없게 하는 것은 기정 활용의 덕분이요,

三軍之衆이 可使必受敵而無敗者는 奇正이 是也오

兵之所加에 如以礮投卵者는 虛實이 是也요
병 지 소 가 여 이 하 투 란 자 허 실 시 야

군사를 투입하는 바가 마치 돌로써 알을 깨는 듯이 쉽게 하는 것은 허실 활용의 덕분이다.

兵之所加에 如以礮投卵者는 虛實이 是也요

凡 戰者는 以正合하야 以奇勝이라
범 전 자 이 정 합 이 기 승

무릇 싸움이란 정공법으로 마주 대하고, 기공법으로써 승리하여야 한다.

凡 戰者는 以正合하야 以奇勝이라

故로 善出奇者는 無窮如天地하고 不竭如江海니
고 선출기자 무궁여천지 불갈여강해

그런데 기(奇)를 잘 구사하는 자는 천지와 같이 막힘이 없고, 강이나 바다와 같이 마르지 않는 것이니

故로 善出奇者는 無窮如天地하고 不竭如江海니

終而復始는 日月이 是也요 死而更生은 四時 是也라
종이복시 일월 시야 사이갱생 사시 시야

끝나는가 하면 다시 시작되는 것은 해와 달과 같고, 죽었는가 하면 다시 살아나는 점에서 사계절이 반복되는 것과 같다.

終而復始는 日月이 是也요 死而更生은 四時 是也라

聲不過五이나 五聲之變을 不可勝聽也요 色不過五나 五色之變을 不可勝觀也니라
성불과오 오성지변 불가승청야 색불과오 오색지변 불가승관야

소리의 요소는 불과 5개이지만 (궁,상,각,치,우) 그 변화는 다 들을 수도 없을 정도이며, 색의 요소는 불과 5개이지만 (적,청,황,백,흑) 그 변화는 다 볼 수도 없을 정도이다.

聲不過五이나 五聲之變을 不可勝聽也요 色不過五나 五色之變을 不可勝觀也니라

味不過五나 五味之變을 不可勝嘗也니라
미불과오 오미지변 불가승상야

맛의 요소는 불과 5개이지만 (감,산,함,신,고) 그 변화(요리들)는 다 맛볼 수도 없을 정도이다.

味不過五나 五味之變을 不可勝嘗也니라

戰勢는 不過奇正이나 奇正之變을 不可勝窮也라
전세 불과기정 기정지변 불가승궁야

전세의 요소는 기와 정에 불과하지만 그 변화(운용법들)는 다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이다.

戰勢는 不過奇正이나 奇正之變을 不可勝窮也라

奇正相生이 如循環之無端이니 孰能窮之哉라
기정상생 여순환지무단 숙능궁지재

기정이 서로 상생하는 바가 마치 끝이 없는 고리와 같으니, 누가 그것을 능히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奇正相生이 如循環之無端이니 孰能窮之哉리오

激水之疾이 至於漂石者는 勢也요 鷺鳥之疾이 至於毀折者는 節也라
격수지질 지어표석자 세야 지조지질 지어훼절자 절야

거세게 흐르는 물이 돌을 떠내려가게 하니 이것을 세(勢)라 하고, 커다란 새의 빠른 습격이 먹이의 뼈를 꺾어 버리듯 하니 이것을 절(節)이라 한다.

激水之疾이 至於漂石者는 勢也요 鷺鳥之疾이 至於毀折者는 節也라

是故로 善戰者는 其勢險하고 其節短이니 勢如擴弩하고 節如發機라
시고 선전자 기세험 기절단 세여확노 절여발기

이런 이치로, 잘 싸우는 자는 그 세가 맹렬하고 그 절(節)이 짧으니, 세는 당겨진 활과 같고 절은 그 활을 쏘는 것과 같다.

是故로 善戰者는 其勢險하고 其節短이니 勢如擴弩하고 節如發機라

紛紛紜紜하여 鬪亂而不可亂이요 渾渾沌沌하여 形圓而不可敗라
분분운운 투란이불가란 혼혼돈돈 형원이불가패

어지럽게 엉클어져 혼란스럽게 싸우지만 실제로는 혼란시킬 수 없으며, 뒤섞여 혼란스러워 동그렇게 진형이 없이 되어도 패배시킬 수 없는 것이다.

紛紛紜紜하여 鬪亂而不可亂이요 渾渾沌沌하여 形圓而不可敗라

亂生於治하고 怯生於勇하고 弱生於強이니
난생어치 겁생어용 약생어강

어지럽게 보이는 것은 질서 속에서 나오고, 겁낸 듯한 것도 용기 속에서 나오고, 약한 듯한 것도 강함에서 나온다.

亂生於治하고 怯生於勇하고 弱生於強이니

治亂은 數也요 勇怯은 勢也요 強弱은 形也라
치란 수야 용겁 세야 강약 형야

질서와 혼란은 수(分數 : 부대편성)의 문제요, 용기와 겁 많음은 세(兵勢)의 문제요, 강하고 약함은 형(形 : 군의 태세)의 문제이다.

治亂은 數也요 勇怯은 勢也요 強弱은 形也라

故로 善動敵者는 形之에 敵必從之하고 予之에 敵必取之니 以利動之하고 以本待之라
고 선동적자 형지 적필종지 여지 적필취지 이리동지 이본대지

그러므로 적을 잘 조종하는 자가 자신의 형태를 적에게 보여주면 적이 반드시 반응하고, 무엇을 주면 적이 반드시 취하려고 하게 된다.
이익을 주어서 움직이게 하고 나의 근본으로써 (기습할 때를) 기다린다.

故로 善動敵者는 形之에 敵必從之하고 予之에 敵必取之니 以利動之하고 以本待之라

故로 善戰者는 求之於勢하고 不責之於人이라
고 선전자 구지어세 불책지어인

그러므로 싸움을 잘하는 자는 승리를 세의 조성에서 구하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아니한다.

故로 善戰者는 求之於勢하고 不責之於人이라

故로 能擇人而任勢니 任勢者는 其戰人也 如轉木石이라
고 능택인이임세 임세자 기전인야 여전목석

그러므로 능히 사람을 잘 선택하여 세를 만들게 하니, 세를 만든다는 것은 사람들을 싸우게 함에 있어 목석을 굴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故로 能擇人而任勢니 任勢者는 其戰人也 如轉木石이라

木石之性이 安則靜하고 危則動하며 方則止하고 圓則行이니
목석지성 안즉정 위즉동 방즉지 원즉행

목석의 본성이, 안정된데 두면 고요하고 가파른데 두면 움직이며 모나면 정지하고 둥글면 굴러가는 것이니,

木石之性이 安則靜하고 危則動하며 方則止하고 圓則行이니

故로 善戰人之勢 如轉圓石於千仞之山者는 勢也라
고 선전인지세 여전원석어천인지산자 세야

그러므로 잘 싸우게 하는 자의 세는 마치 둥근 돌을 천길 산에서 굴러 내리는 것과 같으니, 이를 세라고 한다.

故로 善戰人之勢 如轉圓石於千仞之山者는 勢也라